

KING matt

마쿠노우치 디스카

아줌마!
치요 아줌마!
좀 와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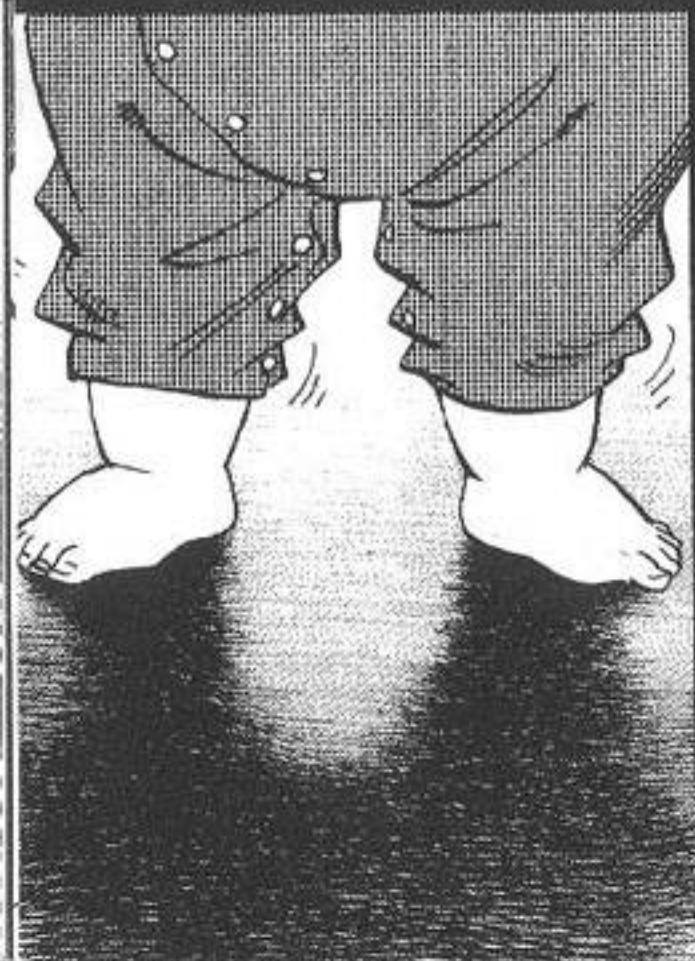
칸나가
있죠...!

뭔데?



조금만 더
칸나를
봐 달래두.

왜 불러?
지금 전표가 안 맞아서
곧치 아파 죽겠는데.



빠르
기는 정도가
아니라...

잘 보고 있어야지.
칸나 고갯이
요즘은 눈만 떠면
빠르 기어가서...



어머나?!

보세요!!



켄지.

와아아아아

"친구"가
등장했다-!!
박수-!!





우-!!



서... 서... 섰네!

그쵸?
애가 임만
봐도...



우-!!



게다가 어쩐지
화가 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른 것
아니?



저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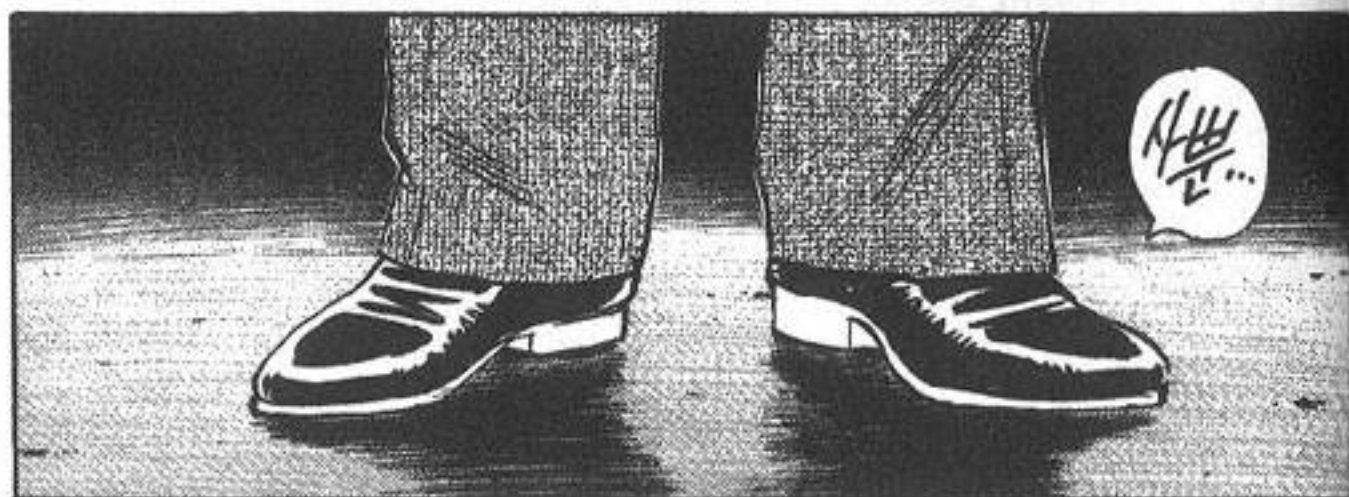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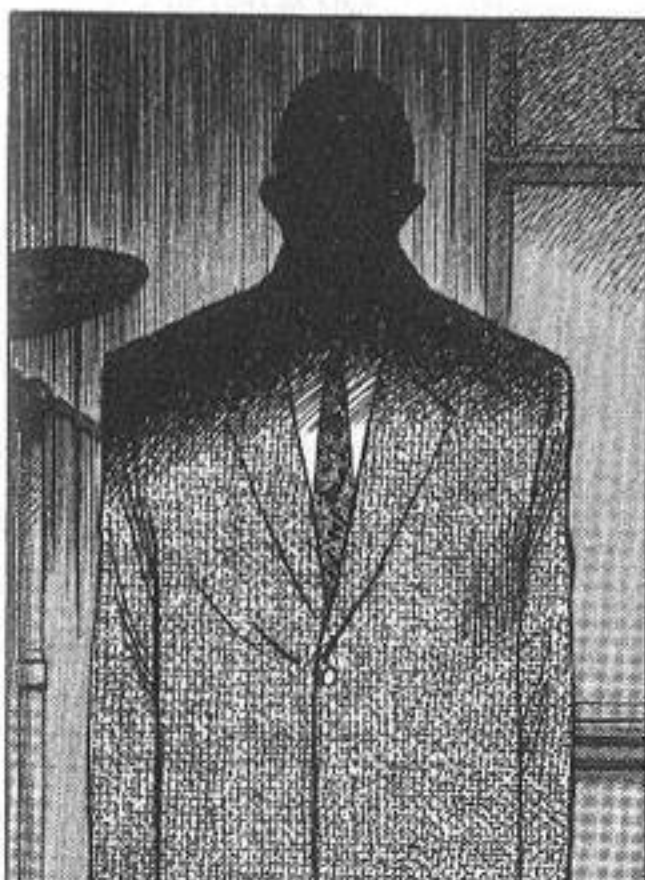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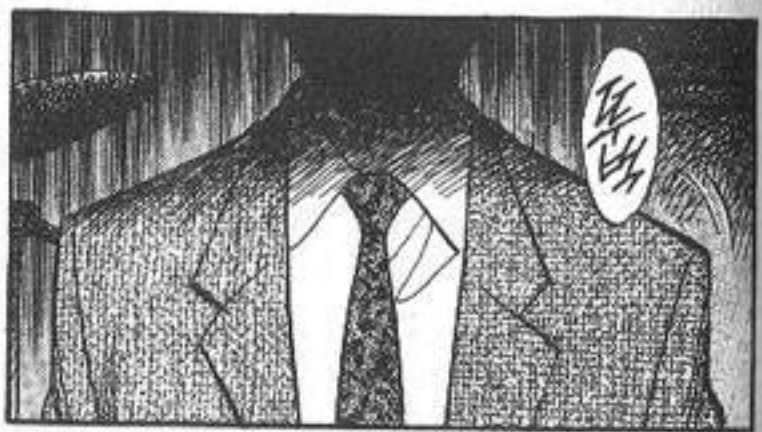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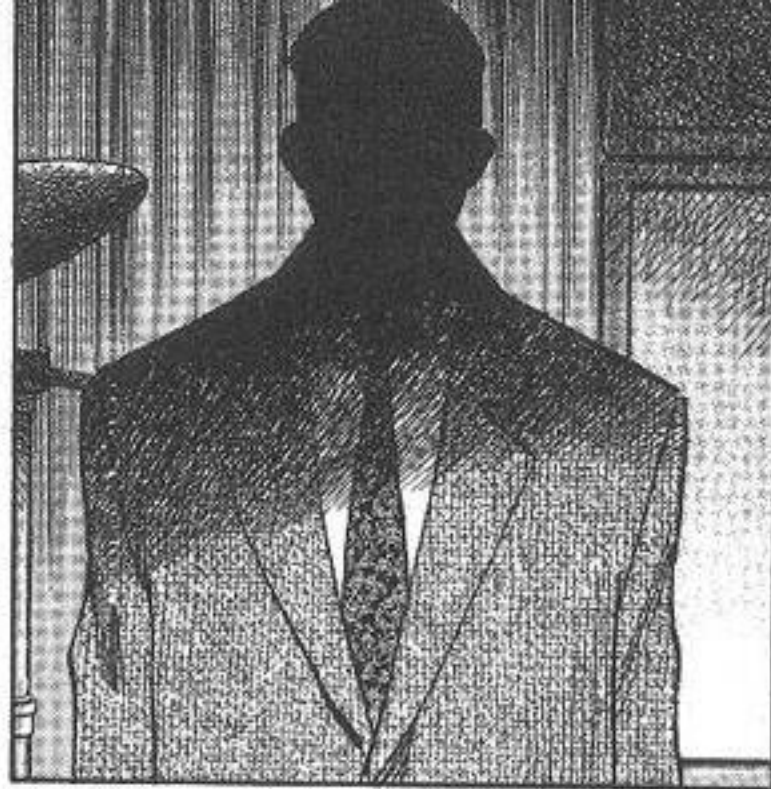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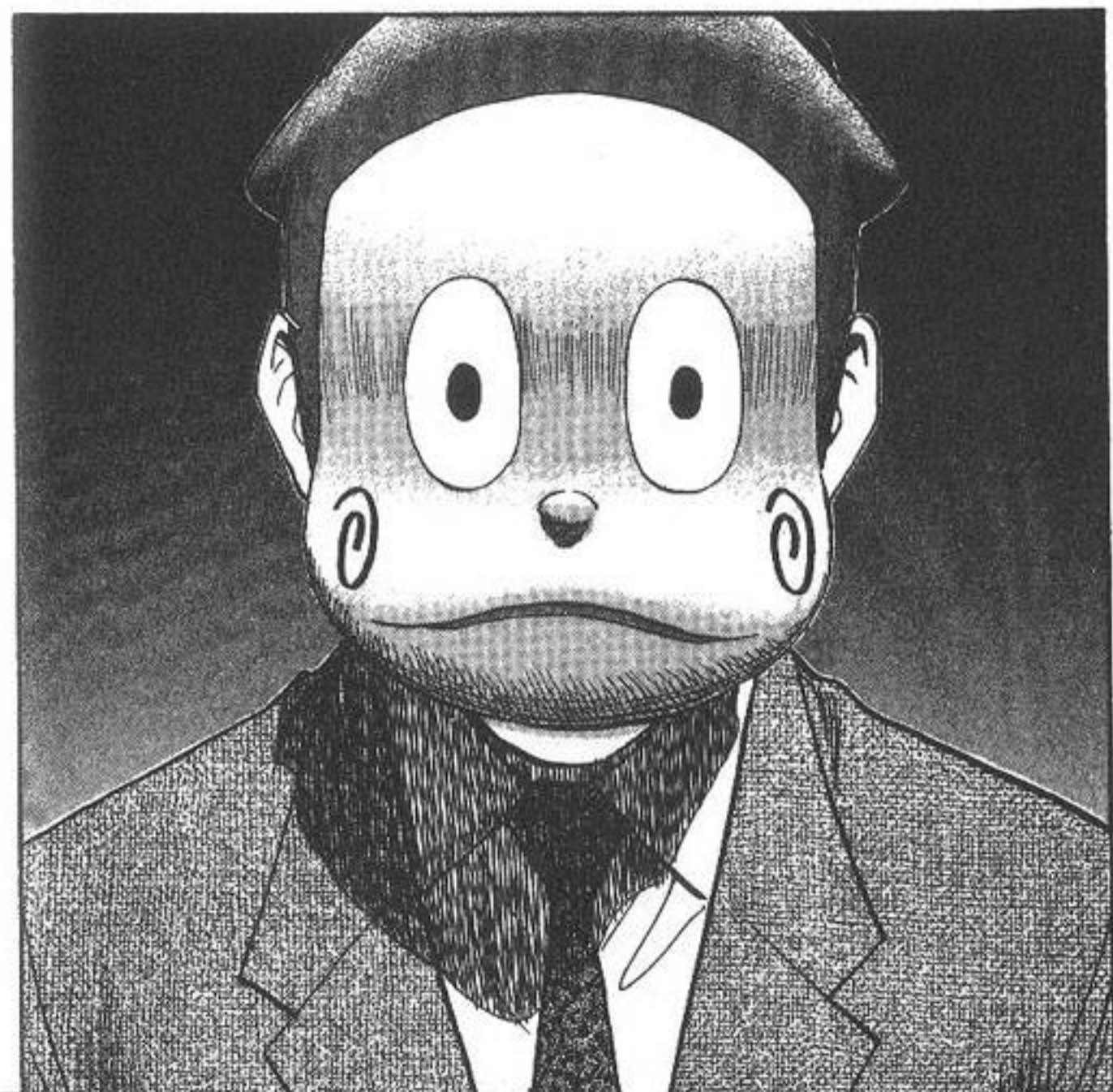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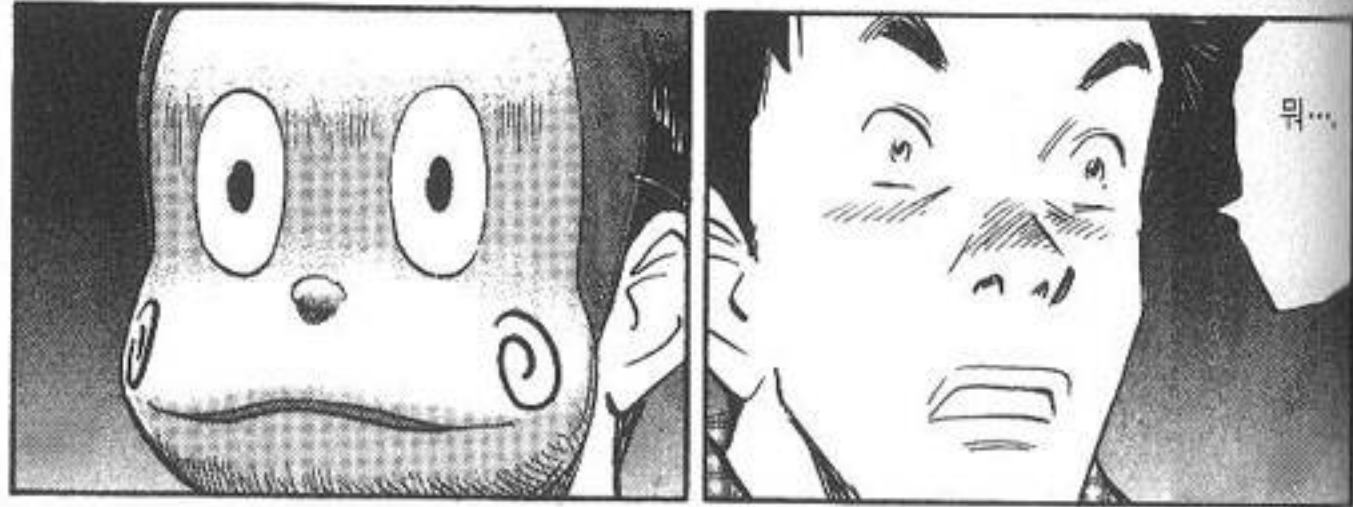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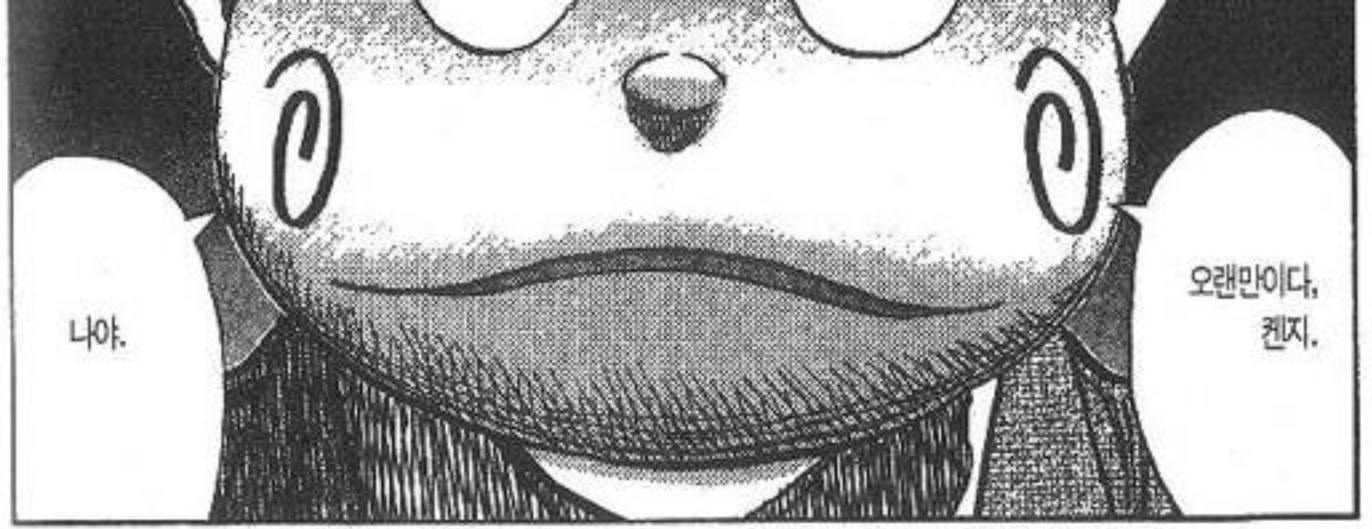
화나 나...?
저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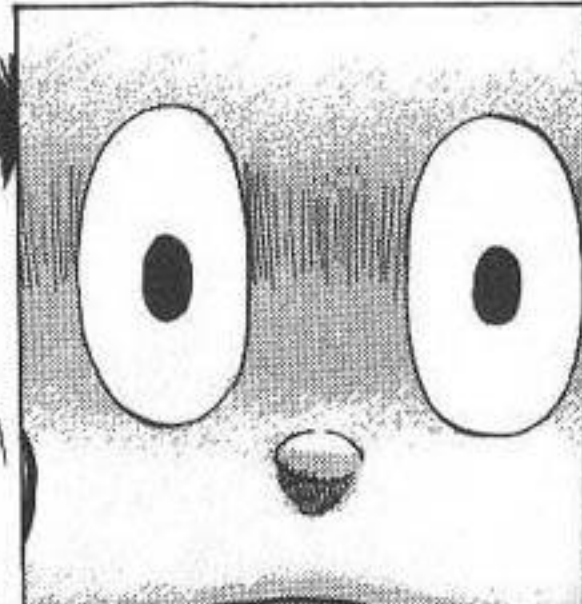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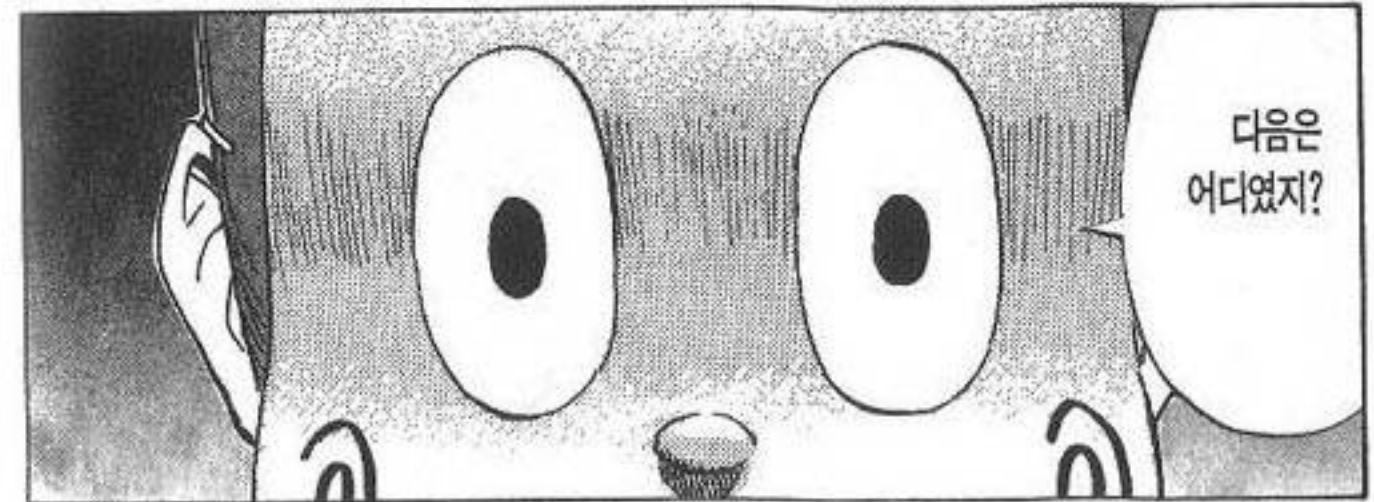
봐요,
아끼부터 저쪽을
보면서...













레이저 총이니
뭐니 하는,
이런 무기까지
만들었어!



웃지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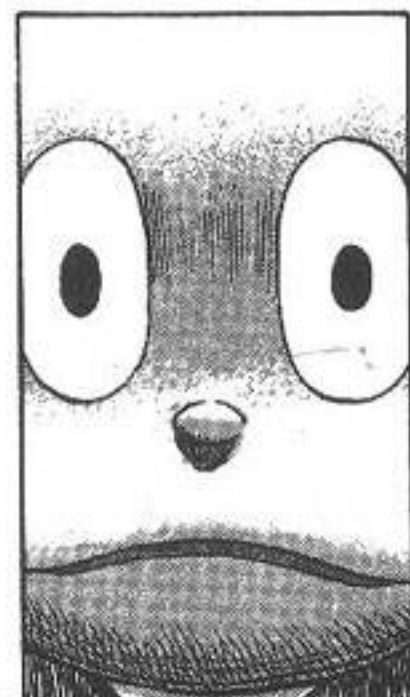
이게
그 증거의
해이다!



이건
장난감이
아니지?



이대로 놔두면
피해자가 점점
늘어날 거야!



그냥 무면
안돼...



뭐...
뭐...?!

켄지!!

켄지!!

켄지!!



조용히 해!

자...
잠깐
기다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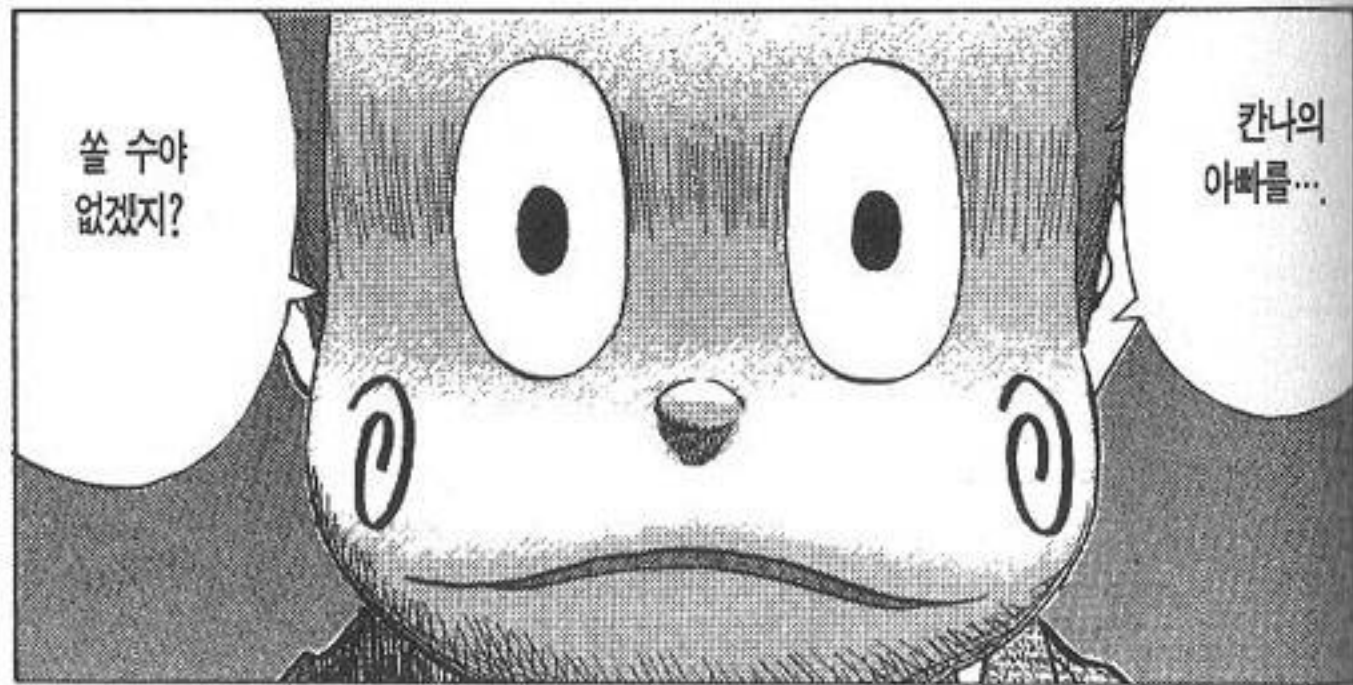


이 놈은...
너희들이 믿는
이 "친구"란
놈은...!

살인자란
말아-!!



입 다물고
들어!!



쓸 수
없겠지?

칸나의
아버를...



뭐...



뭐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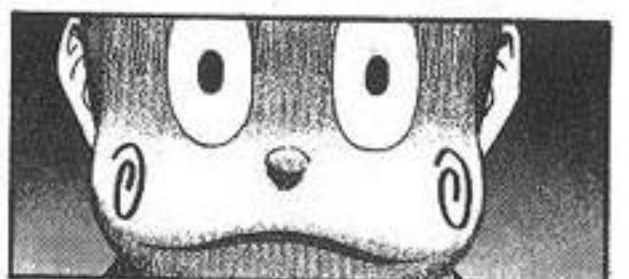


동키를
죽였어!



런던의
사람들을
...

너는
샌프란시스코의
사람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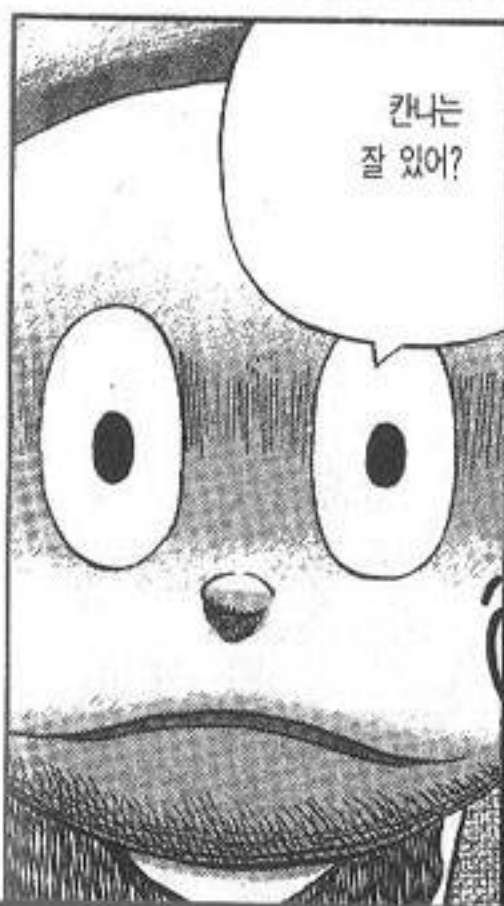


.....



너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너답지 않아.
총 같은 걸
겨누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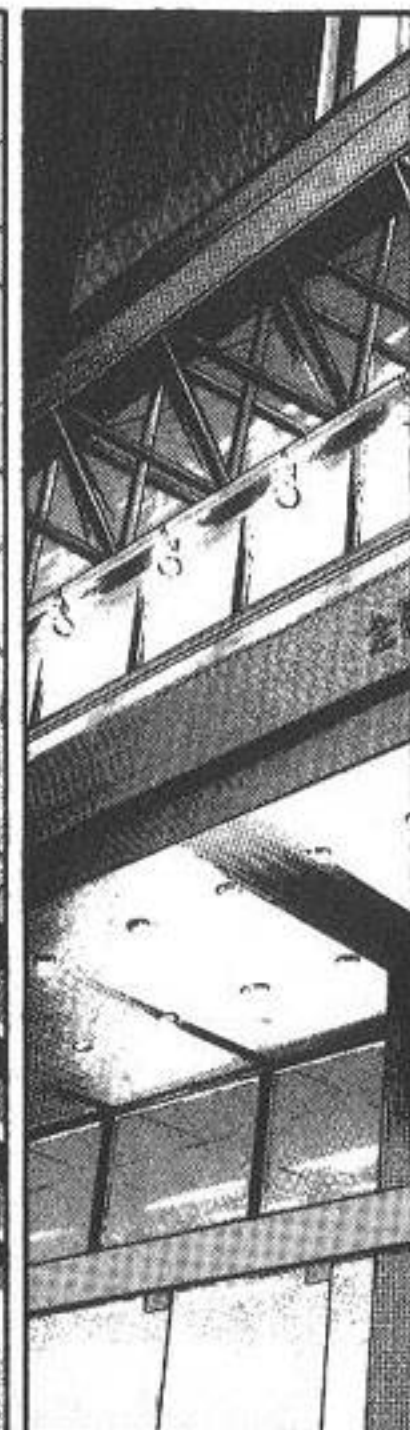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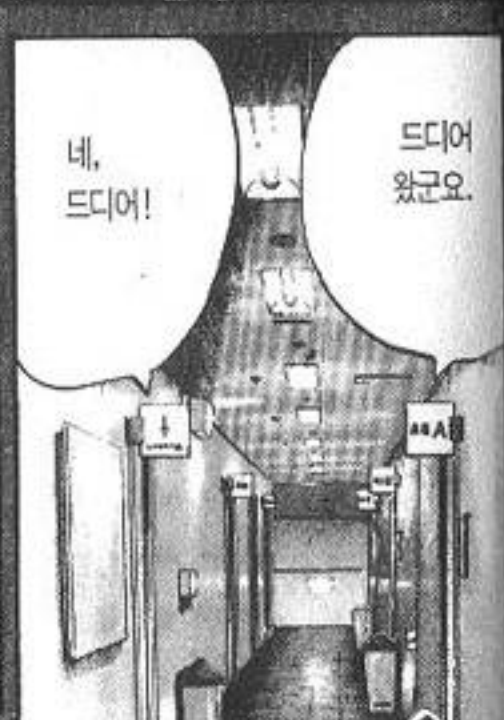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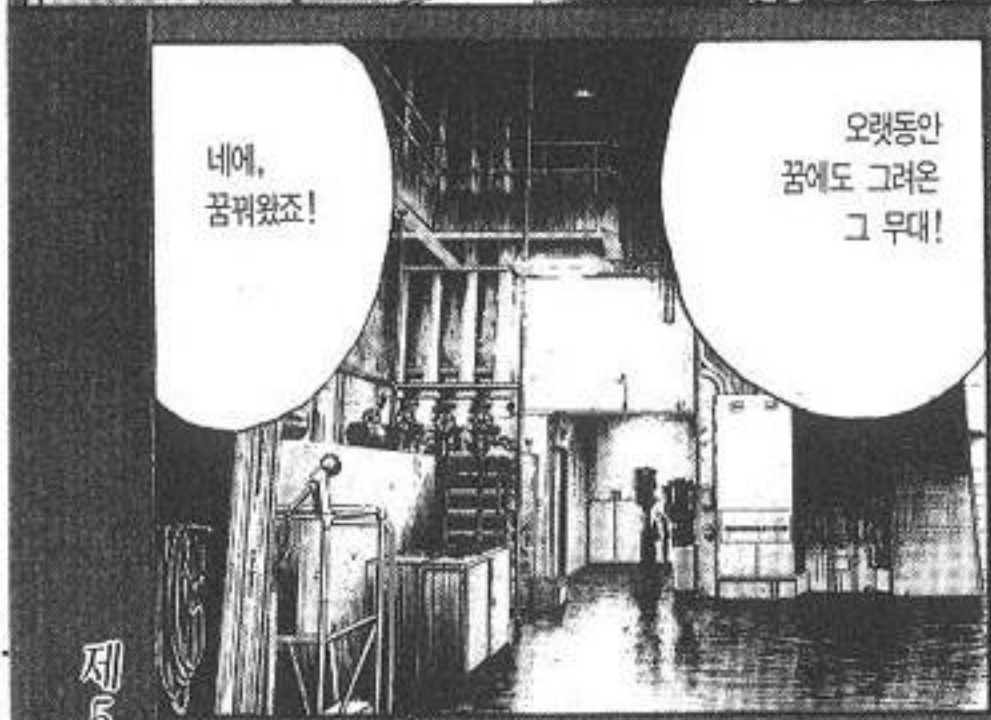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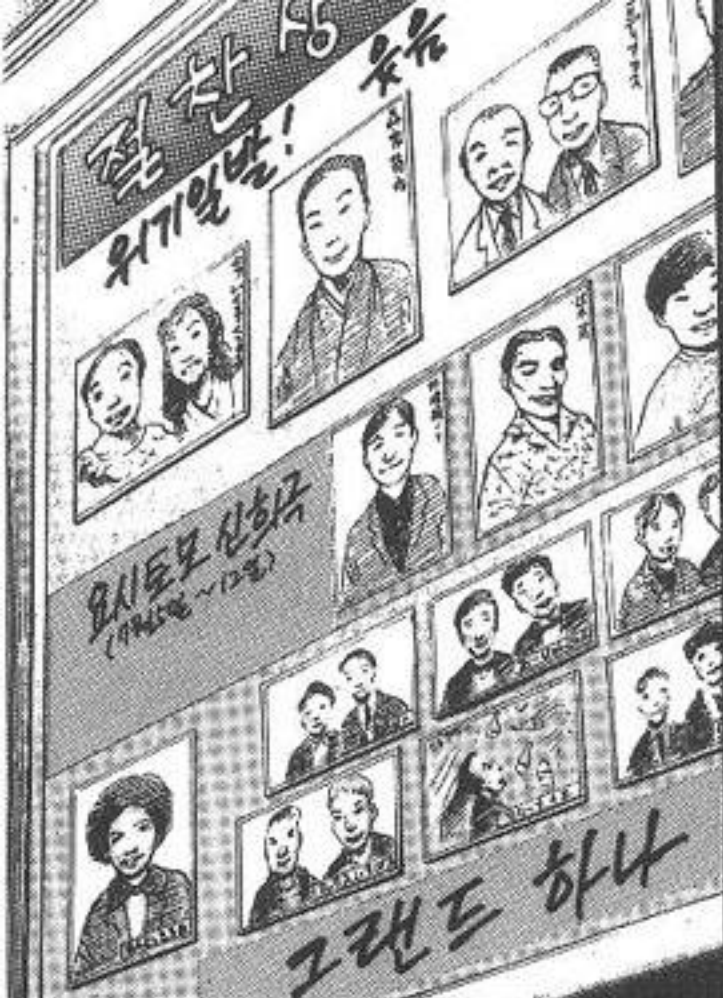
칸나는
잘 있어?



.....?

빛보다,
네게는 절대
날 쓸 수 없는
이유가 있어.





제5화 같은반 친구

네에, 꿈꿔왔죠!

오랫동안 꿈에도 그려온 그 무대!

네, 드디어!

드디어 왔군요.

웁니까!!

꿈에서 깨어나면 번두리 야간업소...

관계자의 출입금지

누구... 더라?

칸나의...

누나가...

저놈과...

아니야...

놀자, 켄지.

켄지, 놀자.

어...?!



웃다
마다요...



관객들이 좋아서
박장대소 하고요!

정말
웃을까요?



죽어요?!

웃다 쓰러져
죽을 걸요!!



뭐야, 그 차림은?
신인 만담꾼인가?
누구야?



이봐!
당신들,
거기서 뭐해!



우선 여기서
힌방!



할 수 없지.
예정을
바꾸죠.

어...
어쩌죠?



바로 앞에 있잖아,
웃음의 전당이!

아하,
웃음의 전당!



관객
뻑뻑하고요!

관객이 뻑뻑하게
앉아 있습니다.



네이,
막 오르고요!

슬슬
막이
올라갑니다.



하~ 긴장
되네요.

그때
우리의 만담이
시작됩니다.



여기가
갑자원
이우?

들리십니까?
외야에 앉은
관중 여러분-!



설마...

그럴 리가 ...



내가 어떻게 된 것 같지...?

...아니, 그...



이런 황당한 얘기를 쉽게 믿는 게 이상하니까...

유키지가 못 믿는 것도 당연해...



내가 말도 안되는 얘기를 지어내서...

내 탓이야 ...



나도 차라리 내가 어떻게 된 거라면 좋겠어...



많은 사람이 죽었다니...

내가 어릴 때 지어낸 이야기로...



그것도 내가 생각한 거야.

유키지의 전말
유키지의 전말
유키지의 전말

제5화 같은반 친구



정말 바보였어...

그런 걸 어떻게 한다고...



바보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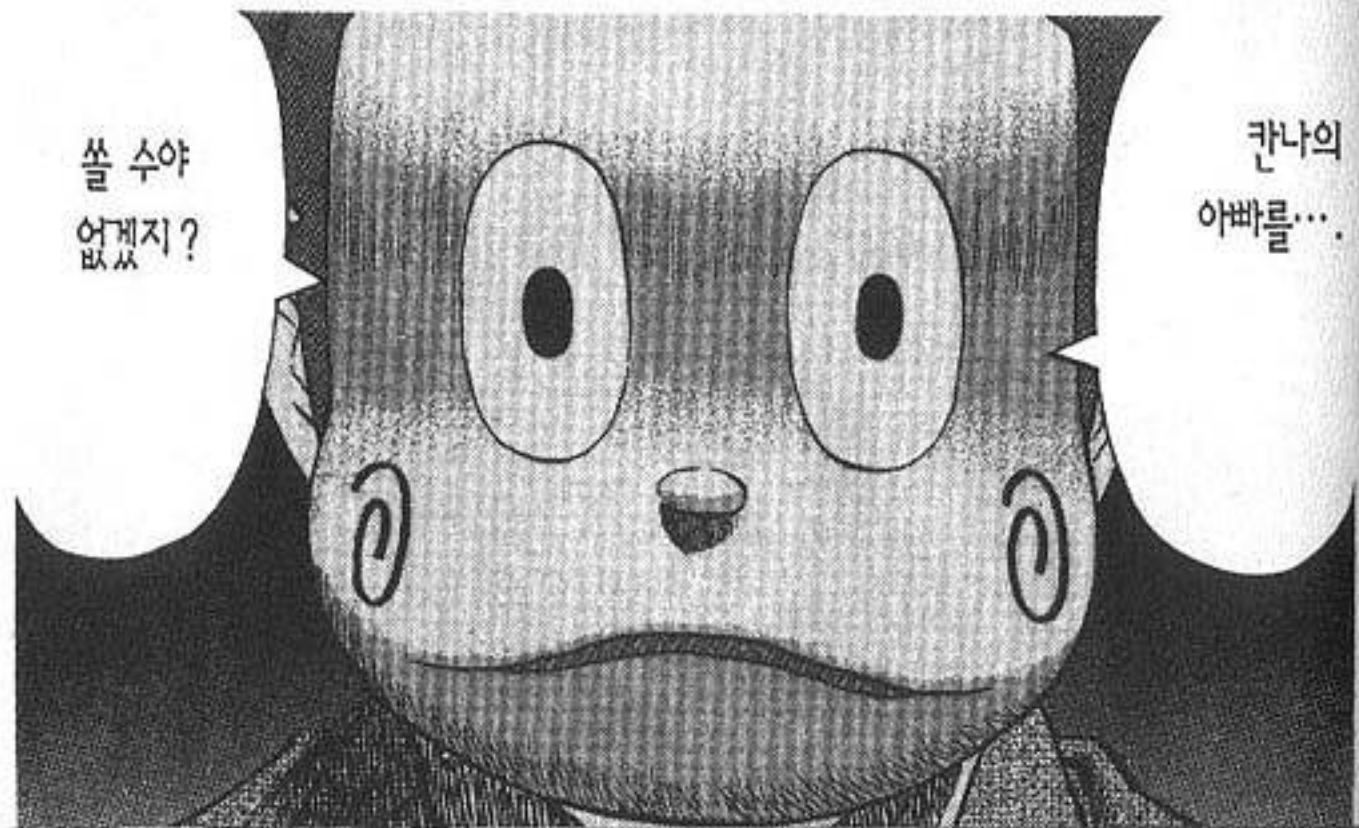
아무 죄없는 칸나까지...



.....



그 바보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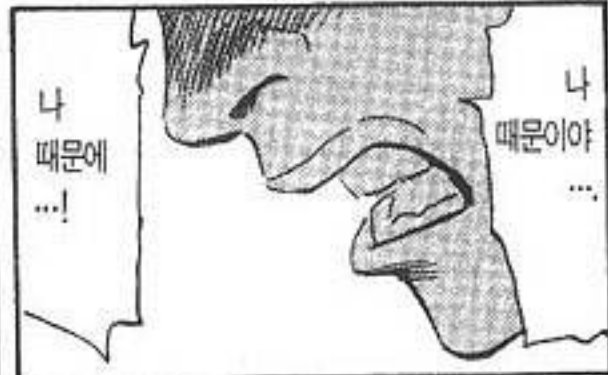


쏟아야 없게지? 없쌔

칸나의 아빠를...



동키가 죽은 것도...!



나 때문에...!

나 때문이야...



전부 나 때문이야!

켄지...



어릴 때 허황된 망상 한번 안 하는 사람이 어딴어?

넌 아무 잘못 없어.



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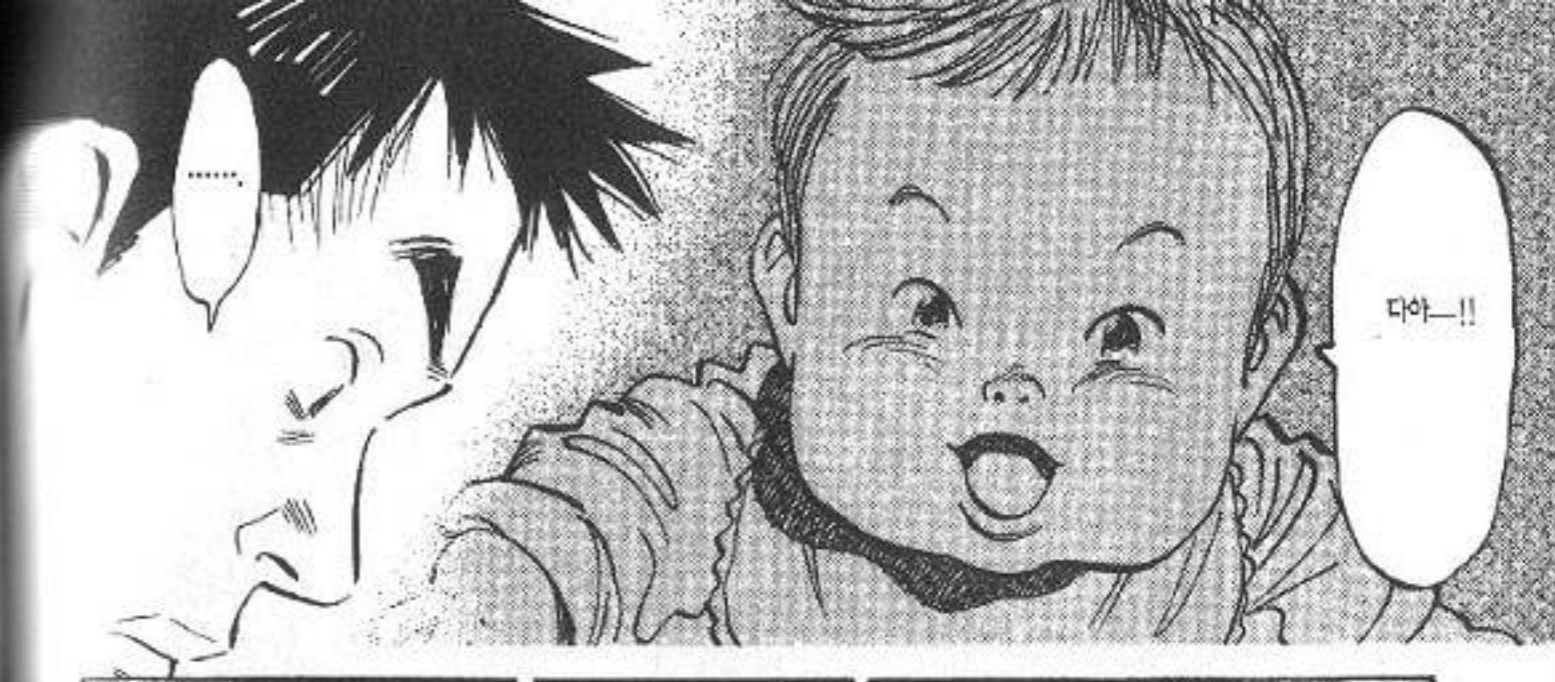


그 약의 조직으로부터 지구를 구하는 거였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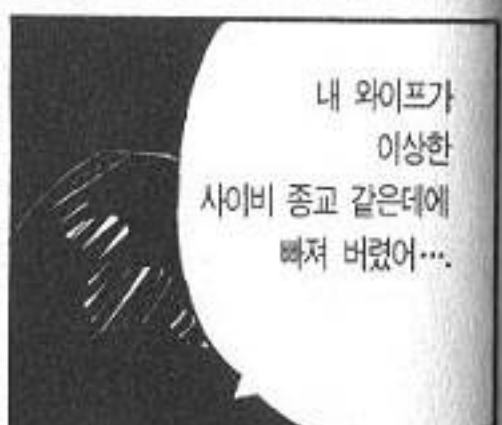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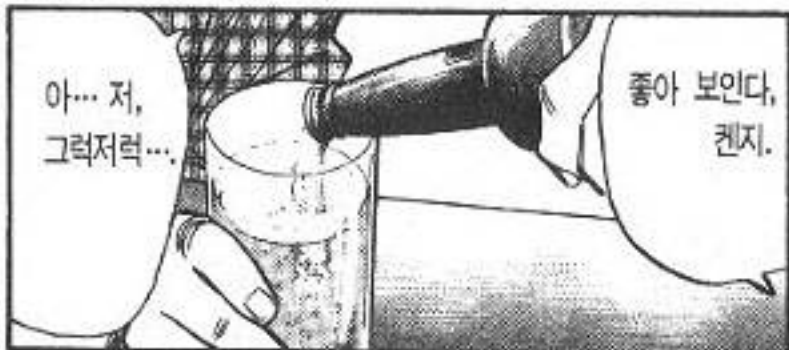
어렸을 때 네가 생각한 건 약의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라...

게다가...











몽.

마루오.

요시츠네.



동키.

케로옹.



오쵸.



켄지.

내가 만든 얘기를
아는 사람은
이 멤버와...



...그래서,
그 얘기를 잘 아는
녀석이 누구누구였는지
생각해 봤지...



난 처음엔 네가
"친구"인가 했지만,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았어.



그리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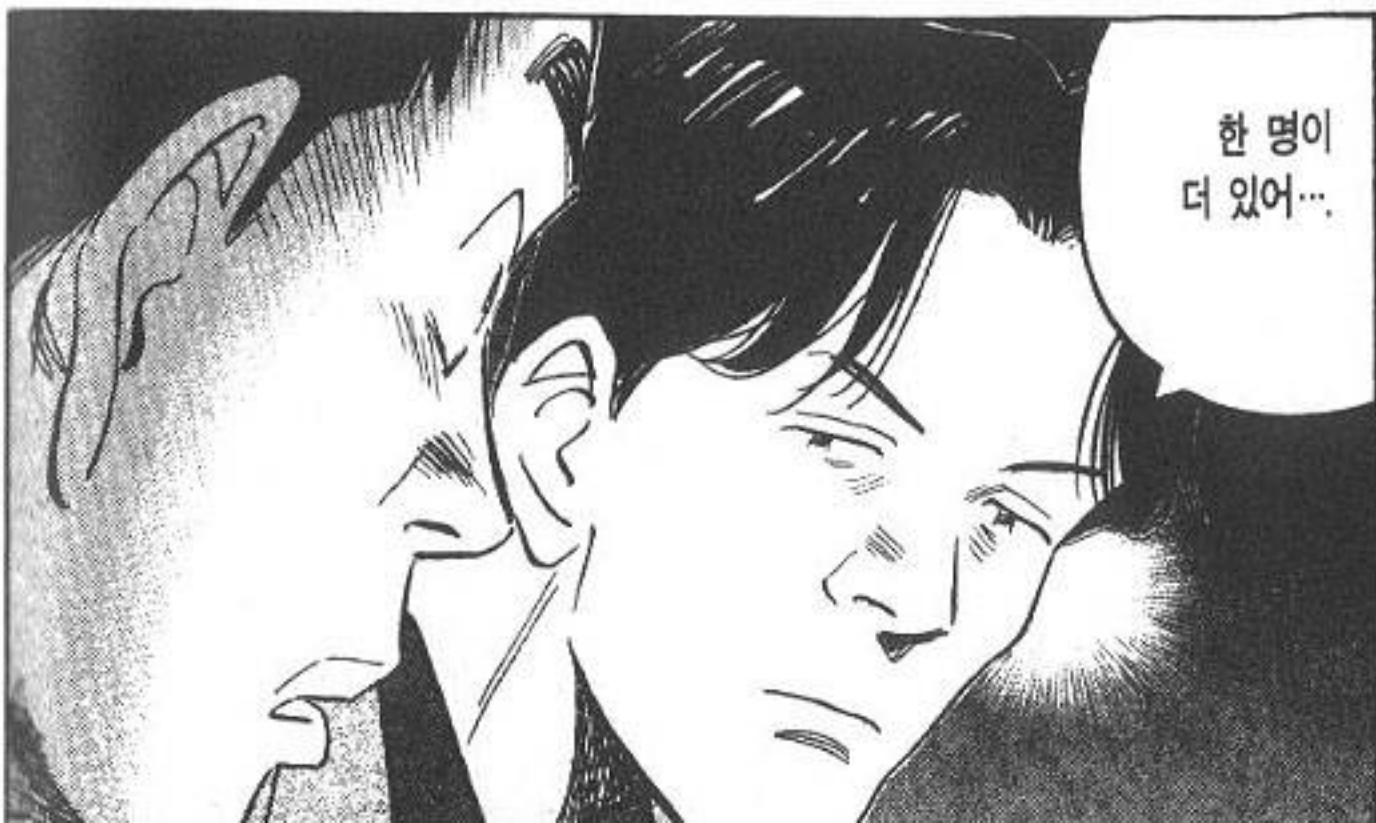
그리고
오쵸...

동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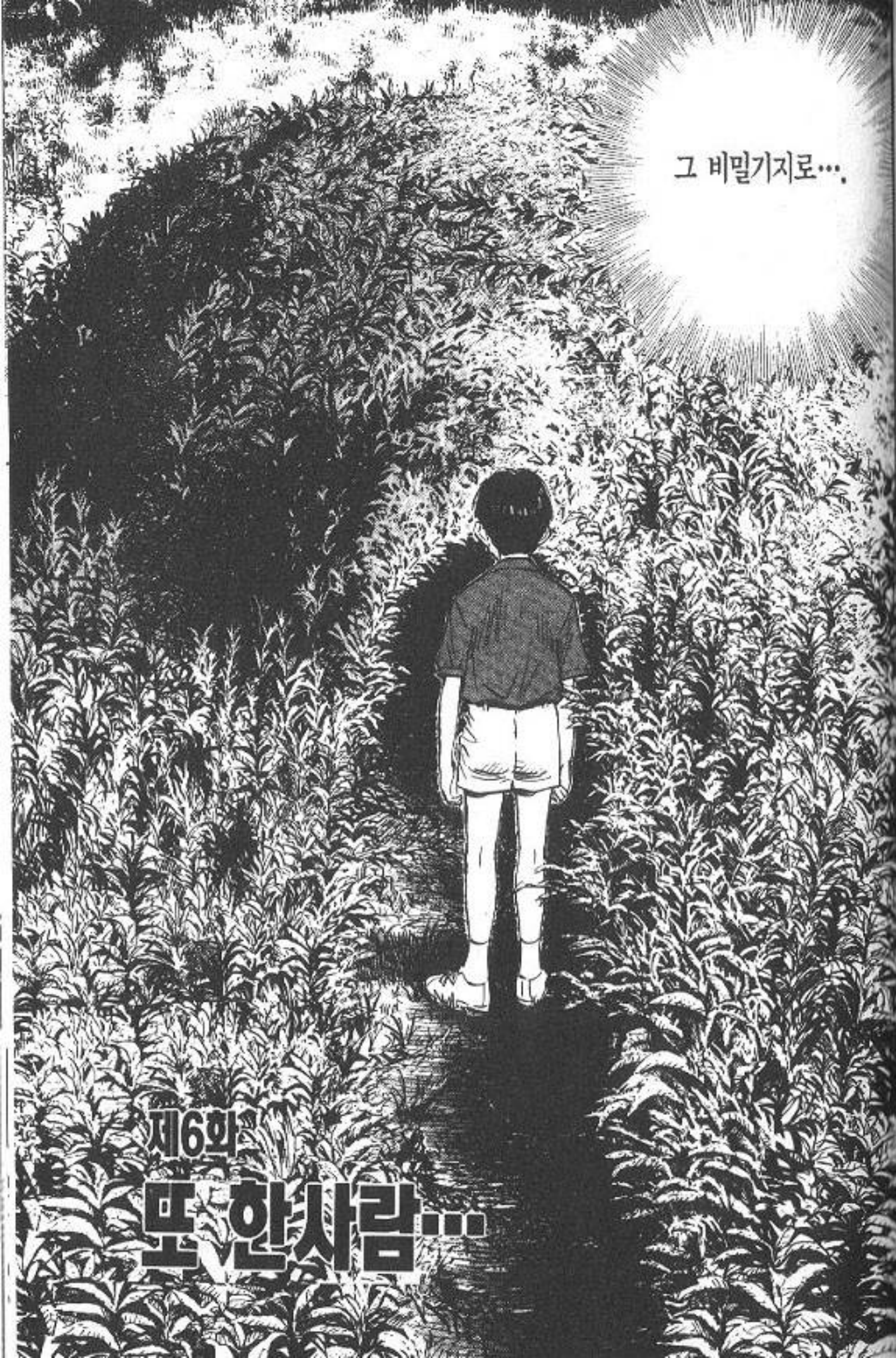


마루오...
케로옹...
몽...

나...
너...
요시츠네...



한 명이
더 있어...



그 비밀가지로...

제6화
또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

그리고
나...



또
한 사람이라는 게...

누... 누구야,
후쿠베!



너희들이
너무 재미있어 보여서
몰래 엿보러
갔었어...



너희들이 만든
벌판의 그거...



주위에 장치된
덫에 걸리지
않도록...





나도 보여줘.

비밀로
해줄게.



나도 보여줘.



그
또 한 사람
이란 게
누구나구!



누구야...!



너도
남의 얘기를
좀 들어라.

지금 다들
넛코 수학여행 때
얘기가
한창인데...



선생님...
어느새...?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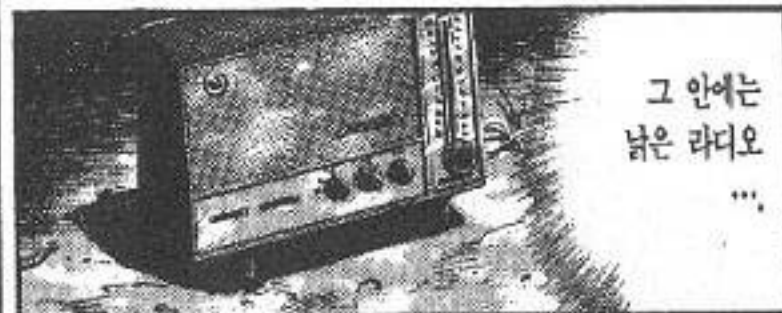
?!

이봐라,
켄지!



그리고
스케치북
한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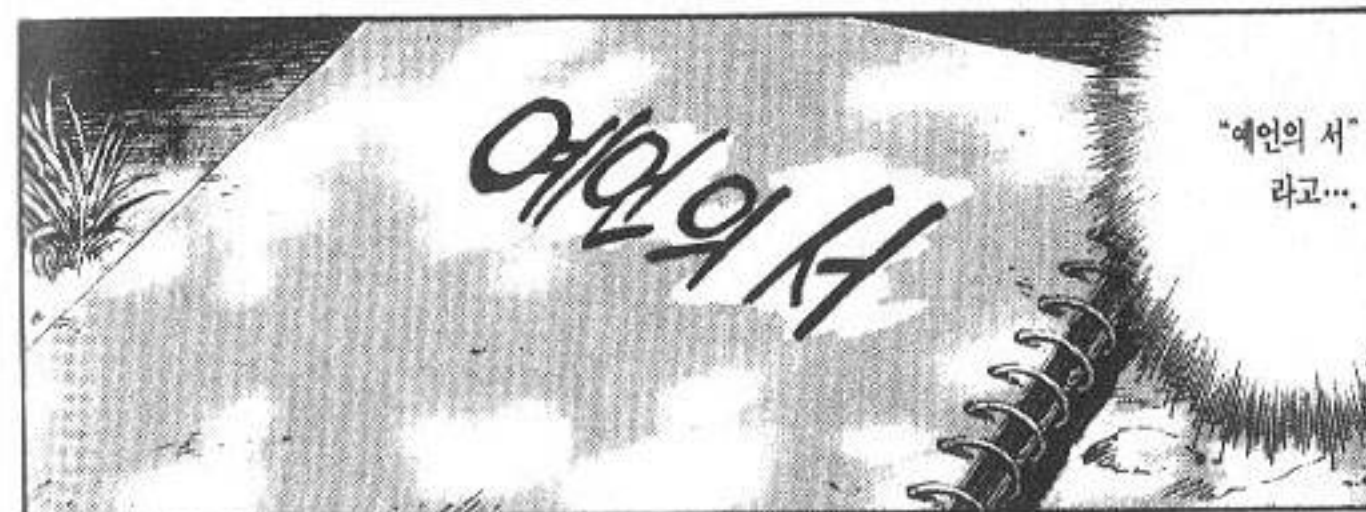
표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지.



그 안에는
남은 라디오
...



소년 선데이,
소년 매거진,
헤이본 원치...



"예언의 서"
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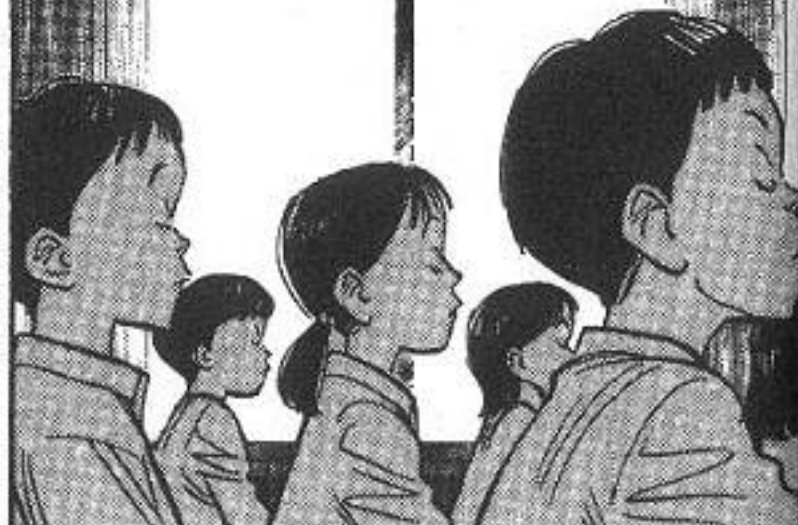


그때
거기...



지구를 정복하려는
악의 조직의
갖가지 음모...

저기에는 갖가지
지구의 위기가
써 있었어...



됐다.
다들 눈 따라.

음...
그래, 알았다.



이게 도무지
생각이 안나...

그런데 그때
누가 손을
들었는지...



맞아,
오늘 동창회에
나왔을지도
모르잖아.

다들 눈을
감고...



선생님,
다시 한번
해 보면
어떨까요?

뭘?



누구더라?

어...
누구지...?



도무지 생각이
안 나서.

그 범인이
누구였는지
기억해내려
해도...



자—
다들 눈을 감고



아아,
너희들은
모를 거다.



술가락을
구부린 게
누구지?



자, 누구지?



그걸로
이 소동은
끝내자.

야단치지 않을 테니
정직하게
손을 들어라.

하
하
하

아아, 거기.
실눈 뜨지 마!

응성

대체 왜
그런 거냐?

게다가
대체 어떻게
한꺼번에
그 많은 손가락을
구부렸지?

응성 응성

응성

허어,
너였나...

응성

응성



그래, 됐다...
좋아, 다들
눈 떠도 된다.

.....



선생님만 아시면
되니까.

한번
해 봐요.

해요,
해.

나참,
다 큰 녀석들이
무슨.



대체 누굴까?

이거
재밌겠다.



그러면 다들
미안하지만
눈을 감아 나오.

그...
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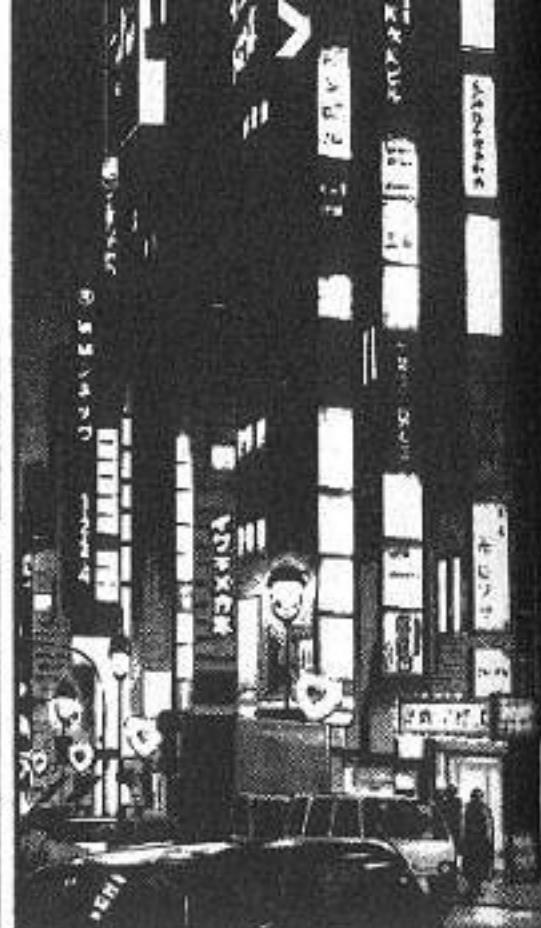
그때 반 전체의
금식 손가락을
구부리뜨린 게
누구지?

화내지
않을 테니
손만 들어라.



좋아,
다들 절대
눈 뜨지 말고







어보세요...
어보세요...?



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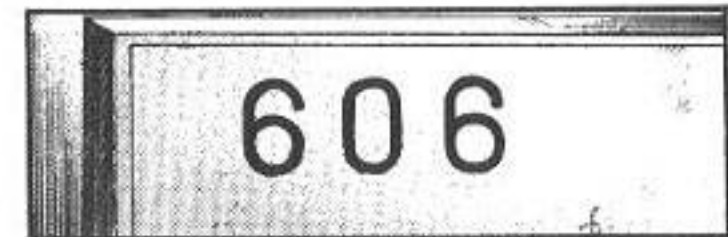


마누라가
사이비 종교
같은데...

빠지는
거지...



아,
정신차려!
너네 집이
여기 맞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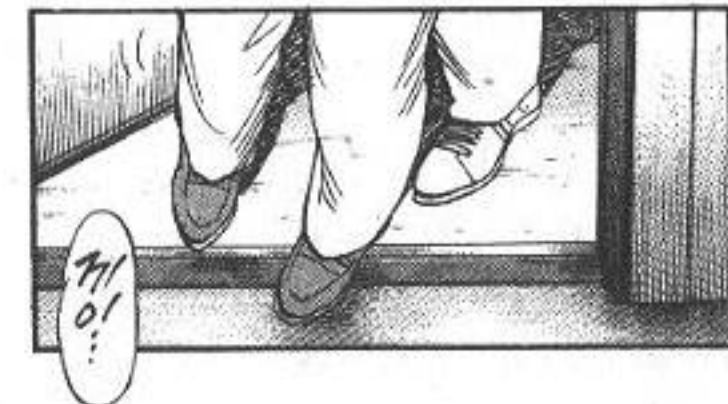


606



육공육...

좋은 데도
사는구만,
몇호실이야!



제!
이!



너 말고
또 한 사람,
"예언의 서"를
봤다는 녀석...

후쿠베,
생각해내.



생각이
안나...

안돼...
도저히
모르겠어...



RRR

받으라니...
아...



RRR

야,
휴대폰 왔다.

대신 받아
줘...



그딴 짓거리나
하고 다니니까
...



저... 저기
여잔데.



어잉-
왜 전화
안 해줘?

아... 네,
저...



딴 여지가
있는 거지?

여자...?



아저씨라니,
지구를 구할
슈퍼
히어로한테.



알았어.
형이 뭐 좀
만들어 줄게.

아저씨
누구야~?



뭐 먹고
싶어?

평화를 위해
우선 너희들의
밥을 해 주마.



생각났어...



넌 가서
자.



젠지...



또 한 사람,
"메언의 서"를
본 녀석...



물...



후...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얼른~.



금방...
밥해 줄게...

응~
알았어...



식사 나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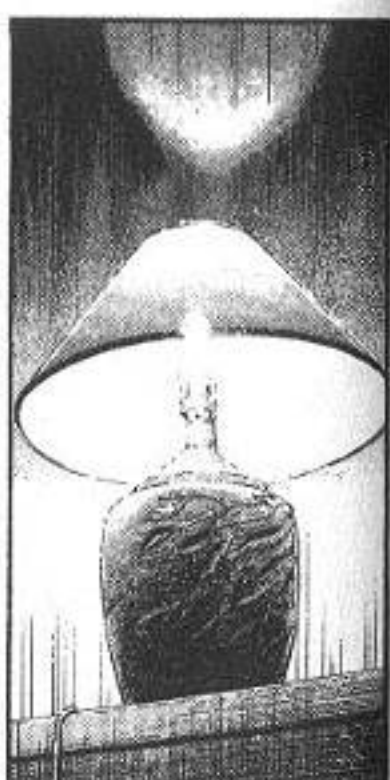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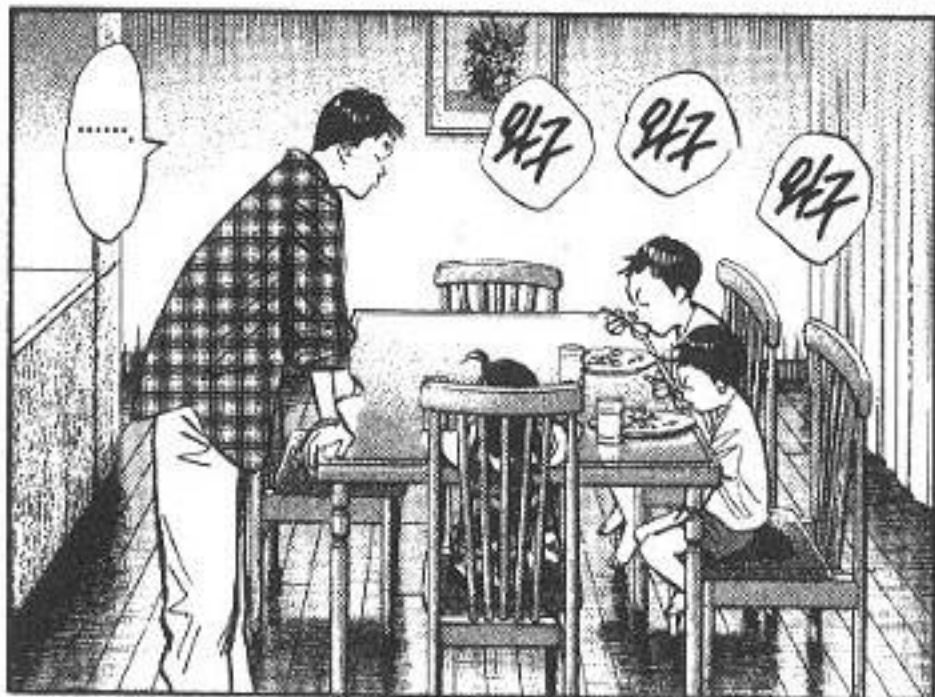
사다키요아 ...



항상 가면을 쓰고 다니던...



사다키요...





어떻게든 거기 써 있는 내용을 생각해내 볼게.

그래...



알 수 있어... 응~.

그게 있으면... "친구"가 하려는 일...



어이, 후쿠베...



어릴 적에 내가 지어낸 얘기니까...



하지만 네 말대로 가장 수상한 것은...

나는 오츠가 "친구"인 줄만 알았는데...



네 덕분에 "친구"의 정체는 많이 좁혀졌어.



응~.



사다키요...



.....



Z
Z
Z



"친구"가 하려는 일을 우리가 막아야 해.

상대가 오츠든 사다키요든...



나와 함께 싸우...



그런 스케치북이 지금까지 남아 있겠어?

벌써 옛날에 버렸겠지.



그거... 그...

"예언의 서"... 보여 줘...



응...?

켄지...



뭐냐,
이런 밤중에!!



집에 가서
네 걸 보면
되잖아!

초등학교
졸업 앨범.



앨범
좀
보여줘.

무슨 앨범?



내 건 밴드 한다고
기출했을 때
엄마가 레코드랑 같이
죄 버렸단 말야!



그럼
내일 보여
줄게,
내일...

안돼!
지금 봐야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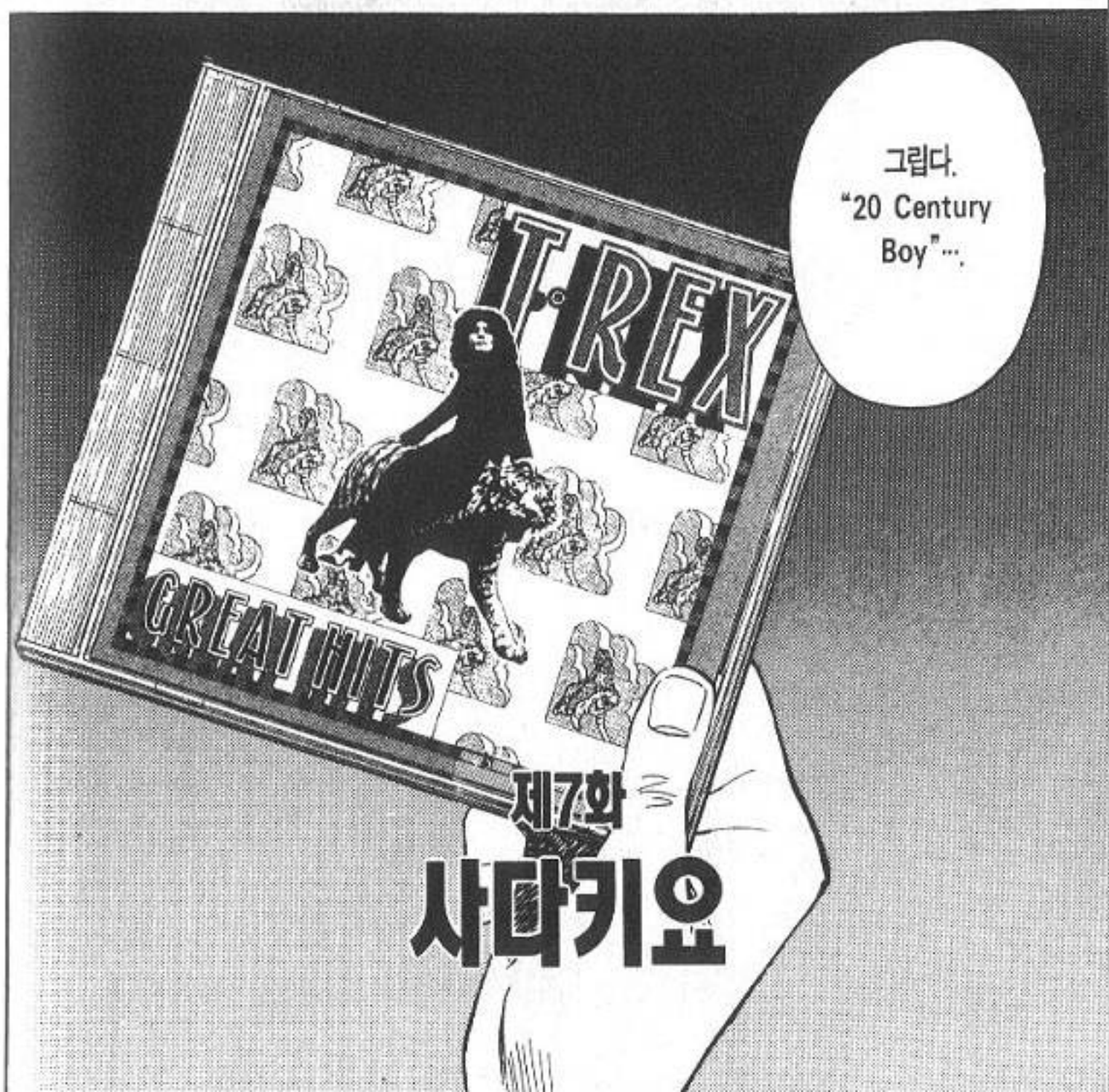


T. 렉스...

후쿠베,
넌 이런 걸
듣고 있었구나...



그림다.
"20 Century
Boy"...



제7화
사다키요



아마 5학년 때
전학을 갔을걸?
사다키요...



야-
넌 잠도
없나?

소풍 때
사진은
없어?



아무데도
없어...

음-
그럴만도
해.



그 녀석은
왕따였으니까.



사다키요는 이상한
녀석이었던.
항상 기면을 쓰고...



동기도 이지메는
꽤 당했지만, 우리 패거리
에 끼인 다음부터는
안 그랬는데...



동창회 때
첫사랑의
상대리도
떠올랐나?

그만 하고
가서 자라.



사다키요라고
기억나?



후아아아



그런
자리에선
자기 소개를
확실히
했어야...

다들 이제
중늬이가 됐으니...
누군지 통 모를
녀석이 제법
있었거든.



온 것도 같고,
안 온 것도
같고...

사다키요라
...
성이
뭐더라?



어제 동창회에
왔었어?

사다키요
...?



?

아- 생각났다.
찍혀 있을 리가
없지.



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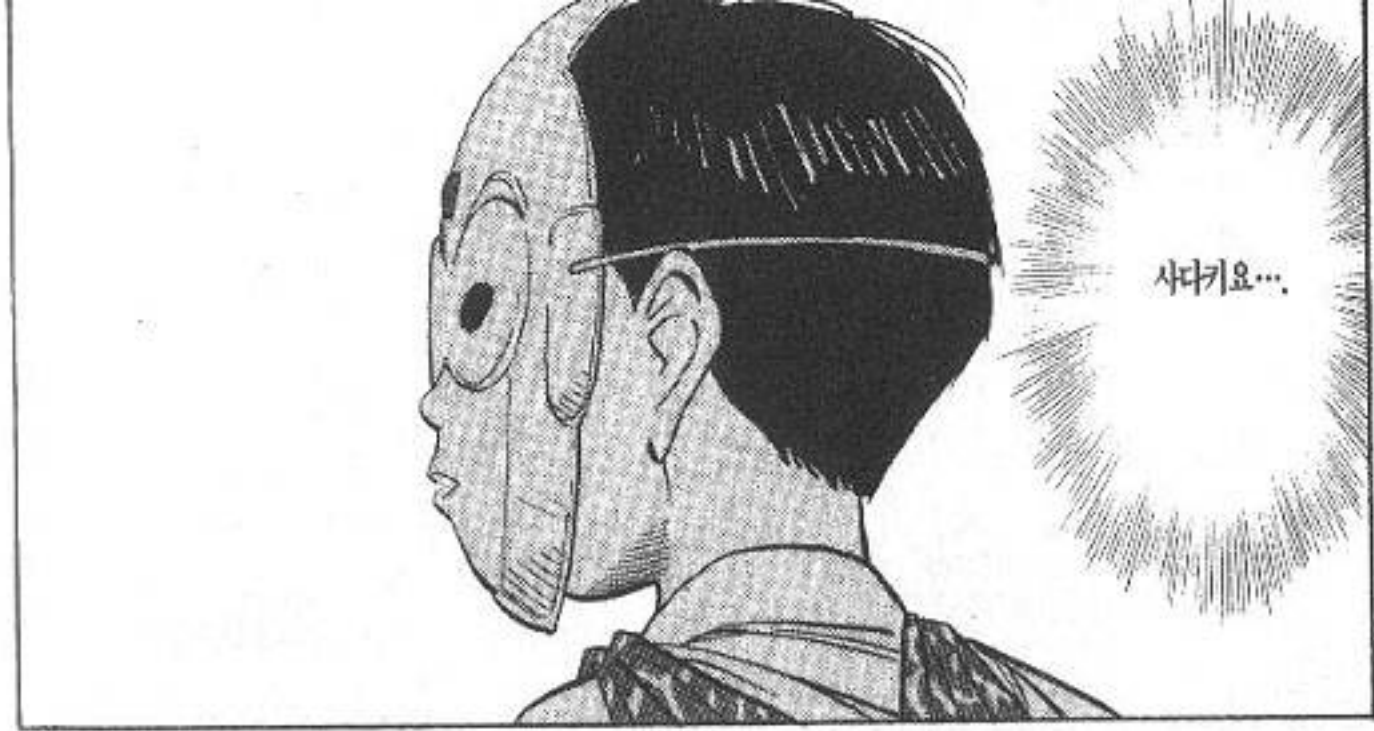
왜 졸업사진에
안 나왔지?



사다키요
...



언제나
우주인과
교신을 하던
사다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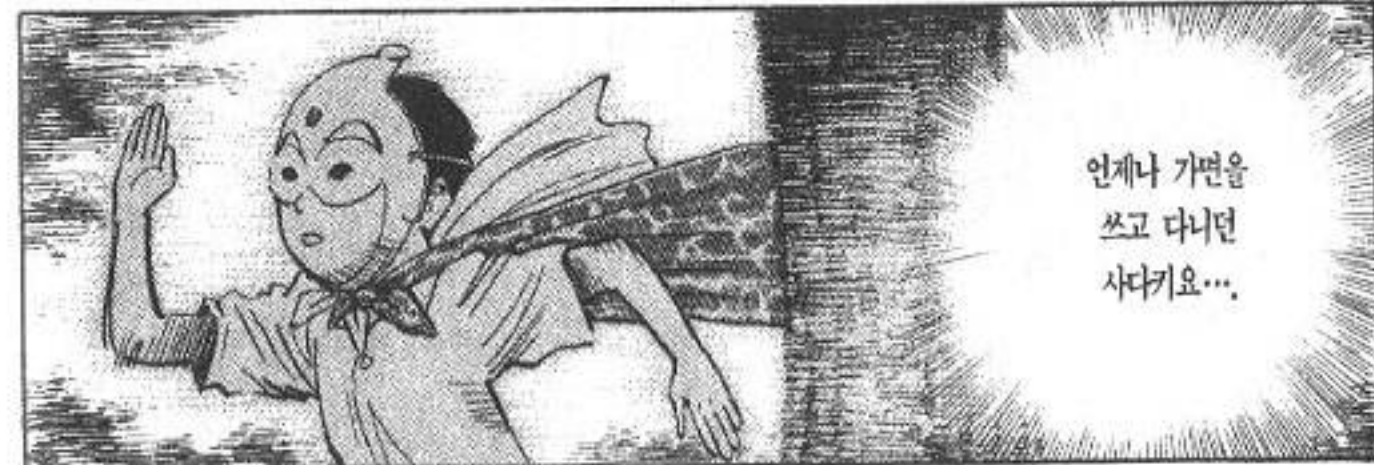
사다키요...



아나...



얼굴이
생각 안나...



언제나 가면을
쓰고 다니던
사다키요...



분명히
죽었다는 얘길
들었거든.
중학교 때...



반창회에
나올 리가
없지.



왜?



교사 뒤편에서
언제나 맞고 있던
사다키요...



교실 구석에
언제나 혼자 있던
사다키요...



어, 이런 데서 싸지 마. 화장실에 가!

쉬 마라~



아빠~



켄지, 흥두개 같은 소리 말고 집에 가서 자!



샌프란시스코, 런던, 오사카에 세균을 퍼뜨리고...



뭐?

하지만 소문이잖아? 만약 정말 소문이었을 뿐이라면...



죽어...?



그러니까 동창회에 나왔다면 건 귀신이지.

그래, 그런 소문을 들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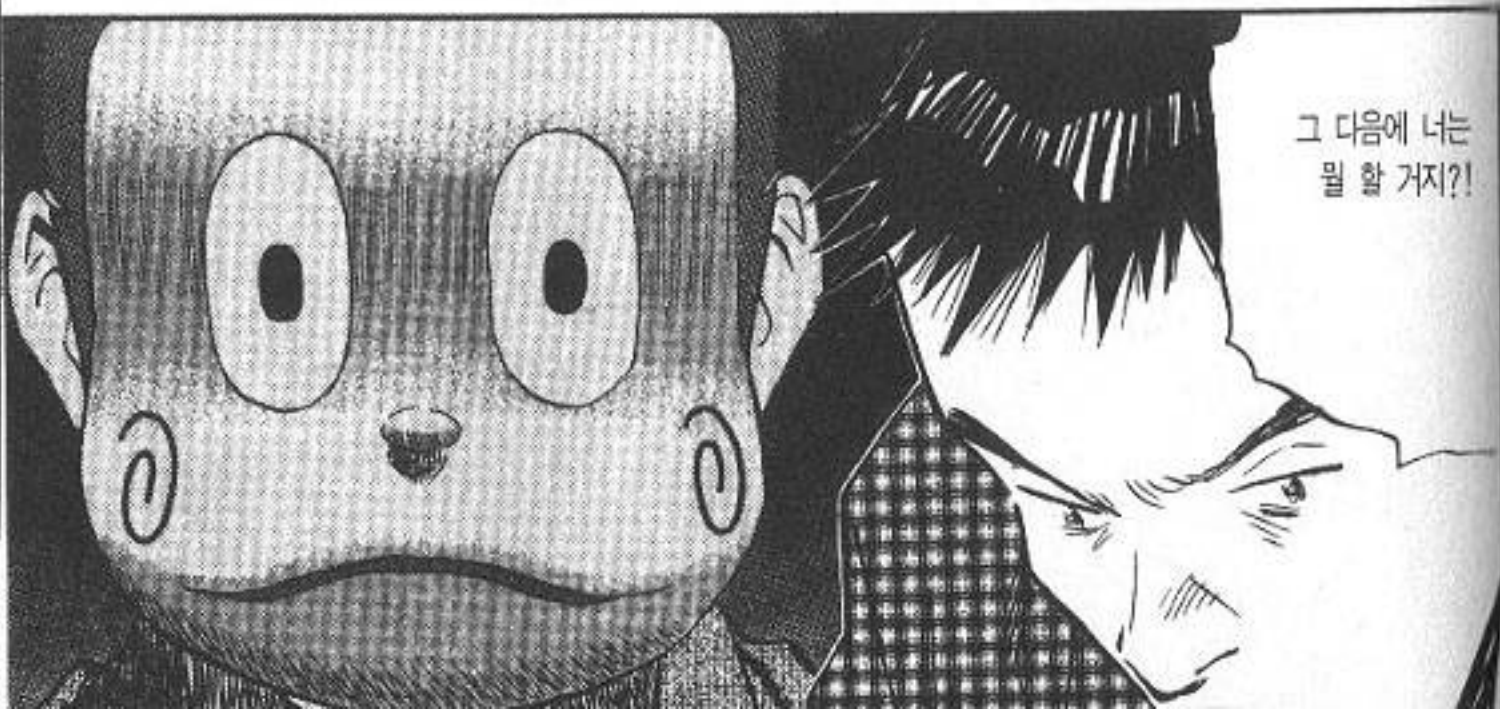


만약 살아 있어서...

무슨 소리아? 너...



만약 시다키요가 살아 있다면...?



그 다음에 너는 뭘 할 거지?!



그리고 오사카...

샌프란시스코... 런던...



더 좋은 곳...?



더 좋은 곳이 있어.

사람들에게
도망칠 곳이 없다는
공포감을 줄
목적이려면...



아...



"이륙합니다,
이륙합니다"

키이이익 !!



역시 악의 조직이니까
좀 화려해야 하지
않겠냐?



세균공격 뿐이라면
시시한데.



도쿄 타워를
팡, 하고!

폭탄?



화려한
거?

응- 뭐랄까,
폭탄을 장치
한다거나...



비행장이다!!



그래도...

교통망을 터뜨린다는 건
좋은 아이디어야.
그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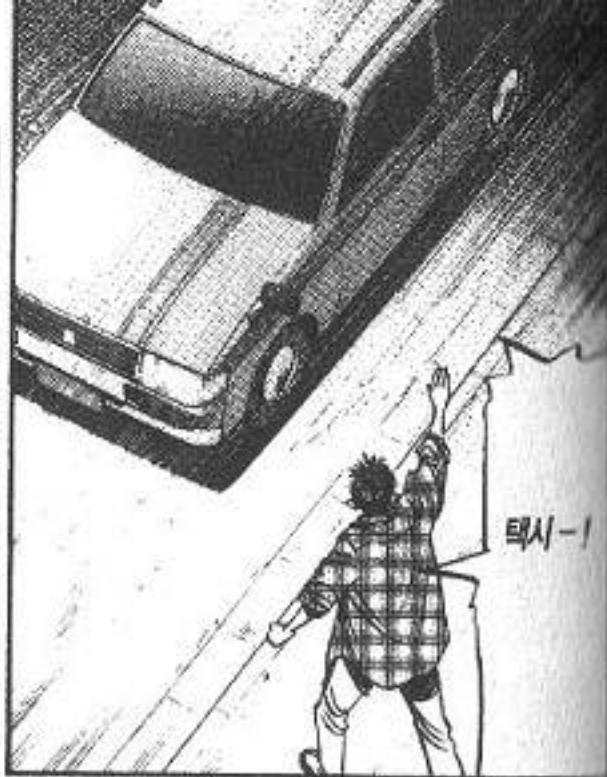
하지만 거기는
괴수영화에서
맨날 터지니까
재미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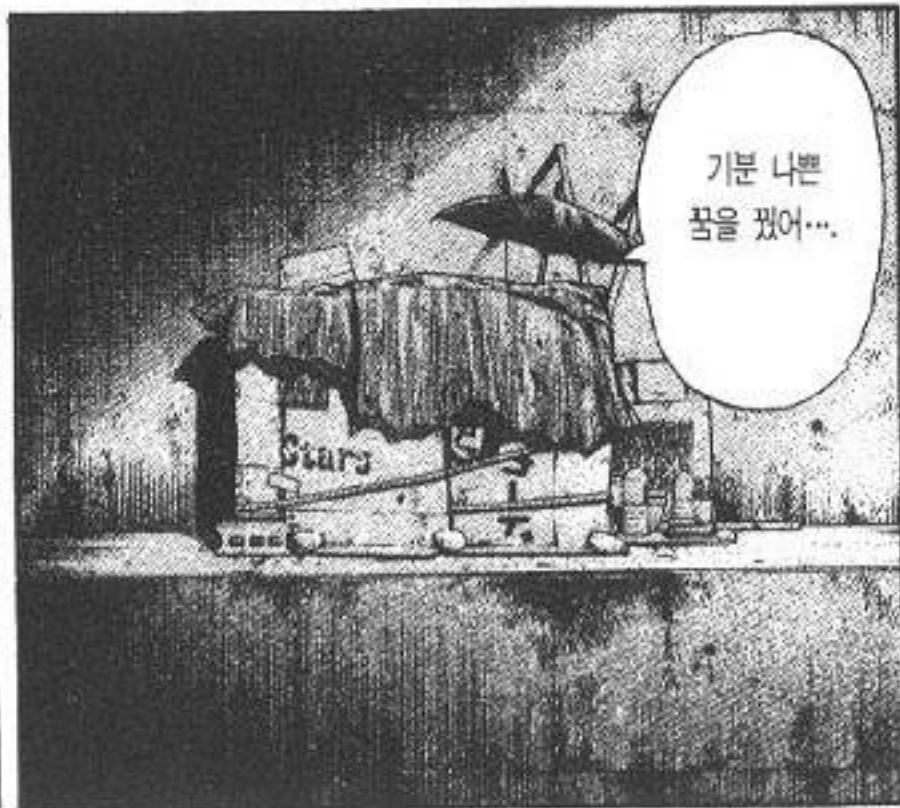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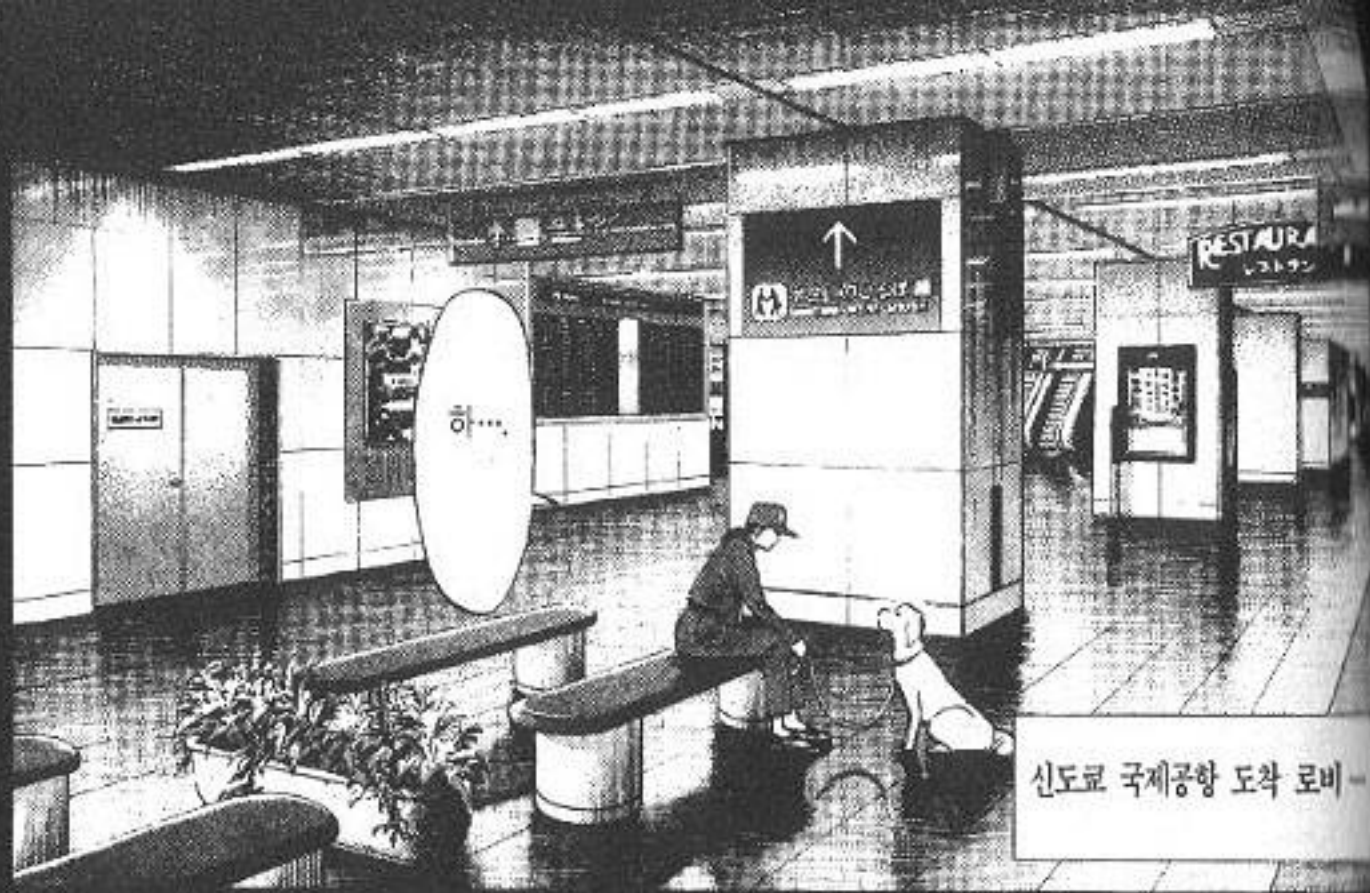
도쿄
타워라
...



신칸센이라...
그거 좋겠다!

신칸센 기차를
팡 터뜨리면
멋지겠다!







그래도 아직 의심스럽단 말인가?

사약 검사 결과 그 흰 가루는 밀가루라는 것이 판명됐네.



그 남자 말야, 지금은 사업가지만 옛날에는 마스크 관계 일을 했다는군.



네...?

나 참, 하필이면 그런 사람을 덮쳐 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서 온 공항을 사냥감 쫓듯 쫓아다녔으니...

그런 사람을 그 멍청이 개와 함께.



이번 우리 세관의 실수를 마스크에 홀리는 건 일도 아니라고 했어.



밀가루?!

화.

화.

화.



그 여행객은 분명 당황하면서...

블루 스리가 달려들어 가방에서 흰 가루가 쏟아졌을 때.



그... 그럴 리가... 분명히 감시관 남...!

세관 검사장-



그런 개가 갑자기 덤벼드는데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나.



그 남자는 그때 분명 도망가려 했습니다...



화.

화.

화.



하지만 ...



완전히
불합격 판정이
나면...



화.

화.



어찌지?
보나마나
넌 이제 훈련소로
돌려보내질 텐데.

아니,
그 정도라면
차라리 낫지...



좋은 사람이
맡아 주면
좋겠다...

화.

화.



화.

화.



TEAM



관찰아.
걱정할 것 없어.
좋은 주인이
나타날 거야...



넌 좀 모자라지만
나쁜 애는
아니니까...

내가 잘
말해 줄게.



?



그만
끝내!!

에?



그 사람이
떠들고 다니면
우리 입장은
어떻게 되겠나?



죄송합니다
...

죄...



그 사람에게는
성심성의껏
사과했네.



이번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걸세.



저도
사과하고
오겠습니다!

아...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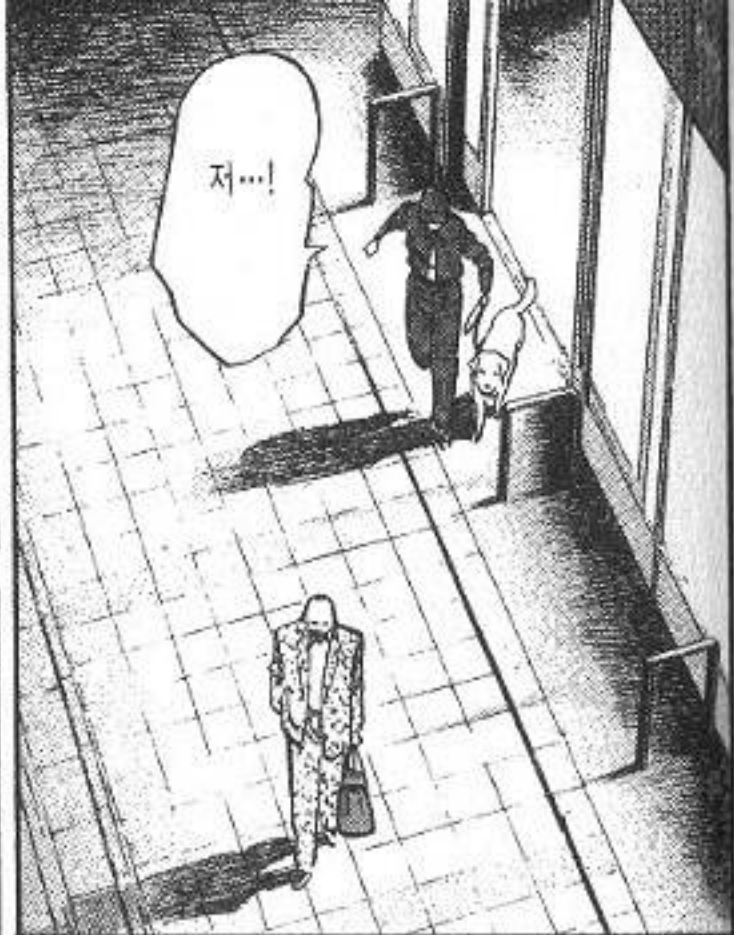
화.



됐으니까
자넨 입 다물고
있어!



아까는
죄송
했습니다!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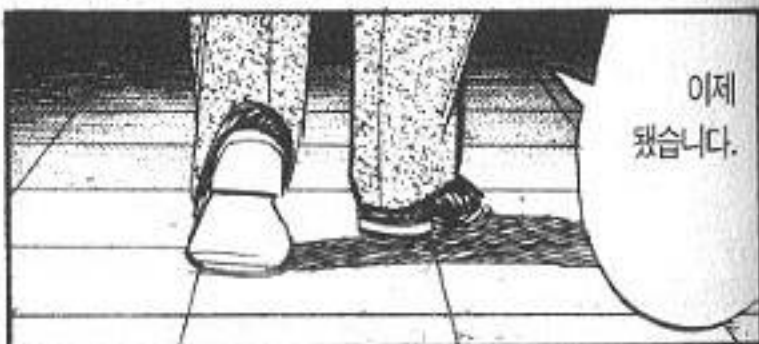


워리고
사과 말씀을
드려야 할지...!



부디
원만하게...

이 개는
해고되어
버릴지
모릅니다!



이제
됐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처지는 못 됩니다만,
그래도...

아...
잠깐 기다려
주세요.



그러니까
말했잖습니까.



원만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아...



그 말가루
주인...

제8화 공항 폭파